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과기정통부, 생활현장 밀접형 전파규제 3건 개선

2026.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9일(목), 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개정안 및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 실외 이용을 허용하고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16일 발표한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의 후속 조치로, 행정예고(10.13.~11.3.)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무선기기가 산업·생활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이용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이용자 불편은 줄이고 전파 혼·간섭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표투과레이다(GPR)·벽투과레이다(WPR) 이용기준 신설

- **(배경)** 전파가 물체를 통과하거나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땅 속이나 건물 벽면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부 구조물을 찾아내는 장비로, 싱크홀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점검 현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음
- **(개정 내용)**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탐지 성능은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다른 무선기기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하여, 늘어나는 레이다 이용 수요에 대응하면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

2.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 실외 이용 허용

- **(배경)**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무선기기로, 건물 출입 감지나 골프·야구에서 공의 궤도 추적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나,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과의 혼·간섭 우려 때문에 그간 실내에서만 이용 가능하였음
  *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 방송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중계소로 전송하는 용도
- **(개정 내용)** 최근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크게 줄어 혼신 우려가 낮아진 만큼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의 실외 이용을 허용하여, 이용자는 실내외 관계없이 용도와 환경에 맞는 대역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연장 및 디지털 전환 강화

- **(배경)** 400㎒ 대역 생활무전기는 통화품질 및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디지털로 전환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신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됨
- **(이용기한 연장)** 제조·수입·판매 금지조치 직전에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를 구매한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기 내구연한(9년, 조달청 고시)을 고려해 이용기한을 2026. 12. 31.에서 2032. 12. 31.까지 6년 연장
- **(디지털 전환 강화)** 이용 종료기간이 정해진 아날로그 생활무전기가 계속 유통될 경우 이용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새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유통에 대한 적발·단속을 강화할 방침

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무선기술의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파 이용 질서는 지키면서 과도한 제약은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 이용 질서를 확보하면서 산업과 생활 속 새로운 무선기술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점

- 이번 개정은 9월 16일 발표된 전파규제 개선 과제가 약 2개월 만에 고시 개정으로 확정되어 곧바로 시행된 것으로, 정부가 산업·생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전파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국내 무선국 운용 현황(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 감소)이나 이용자 의견(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간)과 같은 현장 여건의 변화가 규제개선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 신설과 10.5㎓ 물체감지센서 실외 이용 허용으로 싱크홀 탐지·시설물 점검, 출입 감지, 스포츠 경기의 공 궤도 추적 등 분야에서 관련 제품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장비를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출시나 실외용 제품 확대를 검토하면서, 해당 제품이 개정 고시에서 정한 주파수 대역별 출력 및 이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기존 이용자는 2032년 말까지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부는 새로 제조·수입·판매되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에 대한 적발·단속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생활무전기를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기업들은 재고 및 판매 중인 제품이 디지털 기기인지 점검하는 등 단속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9월 발표에는 이번에 시행된 3건 외에도 산업용 무선충전기 허가면제 요건 완화, 원거리 무선충전 주파수 공급, 조류탐지레이다 기술기준 마련, 국방·방산 분야 실험국 허가 패스트트랙, 완제품 적합성평가 시 인증서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후속 고시 개정 및 행정예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세종은 방송·통신 규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파법령 및 무선기기 기술기준의 해석, 신규 무선기기 출시에 따른 규제 검토는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규제개선 건의 및 행정예고 의견 제출 등 전파규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 ICT그룹은 IC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 개인정보, 인터넷 IT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방송·통신·ICT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법제개선·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Compliance, 침해사고 대응 등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구성원

강신욱
대표변호사

02-316-4059
sokang@shinkim.com

김지훈
수석전문위원

02-316-2883
jhookim@shinkim.com

노진홍
변호사

02-316-1639
jhnoh@shinkim.com

박지윤
변호사

02-316-2898
jypark@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